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p>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p> <p>(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³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p> <p>(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p> <p>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p> <p>협동 목사/ 문신현</p> <p>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p> <p>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p> <p>기도원 교역자/ 김영석³</p> <p>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p>	<p>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승, 마크 바질레프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리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이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p> <p>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이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헌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희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택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p> <p>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종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p> <p>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p> <p>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랫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돌 성가대: 서승원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p> <p>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p>
---	---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46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49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88장	다 같 이
기 도	이미경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8:12~16	사 회 자
찬 양	예수 반석 위에 서리라/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12)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5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이석규 목사

대표기도	류순주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13:6~19/ 사회자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김덕영 형제 & 김보문 집사(만민찬양제 대상팀)
설교	욥기 강해(30) -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욥/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문신현 목사

대표기도	나혜숙 권사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4:8/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임학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조수열 목사

대표기도	강승표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6:8~15/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57)/ 당회장님

2-9회 9차 작성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11월 7일(월) ~ 11월 27일(주일)

주제/ 은사집회, 성전이전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최종태 장로
주일 저녁예배	임학영 목사	이미영 목사
수요 예배	박광현 목사	이형진 집사
금요 철야예배	임학영 목사	이미영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11)

본 문 : 로마서 8:12~16

지난 시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 버려야 할 ‘양심의 악’에 이어 오
 늘은 ‘본성의 악’과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대체로 마음
 깊은 곳의 악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양심의 악, 본
 성의 악 등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악까지 찾아내서 버려야 하지요. 지난 시
 간 ‘양심의 악’을 설명한 데 이어 오늘은 ‘본성의 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성의 악’이란

본성은 ‘마음의 근본 성질’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 속에 원죄를 물려받기 때
 문이지요. 물론 본성은 백 퍼센트 타고 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악
 한 본성을 타고났어도 성장하면서 마음에 선을 많이 받아들이면 본성이 선해지
 고, 반대로 비교적 선한 본성을 타고났어도 악을 자꾸 받아들이면 악한 본성이
 만들어집니다.

본성 속의 악은 양심의 악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더 어렵지요.
 본성은 땅의 성질, 곧 토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와 돌맹이를 제거하고
 질서정연하게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은 그냥 봐서는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한 비진리를 걷어내고 양심의 악도 뽑아내면
 악의 모양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본성에 악이 있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이 본성의 악을 버리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행위적으
 로는 하나님 뜻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욕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욕은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즐기라든 하면 죄를 범했을까 봐 자
 녀들을 불러서 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죄의 담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
 해지려는 욕의 행위는 참으로 순전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
 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욕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는데, 욕이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
 은 욕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욕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이심으로
 욕에게 몇 차례 시험이 옵니다. 자녀도, 재산도 다 잃고 최후에는 발바닥에서 정
 수리까지 악창이 났지요. 그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욕은 위로받아야 할 아내에게 오히려 굴욕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욕기 2장 10절 중반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지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을 겸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요. 욕에게 임한 재앙은 모두 사단이 준 것입니다. 만약 욕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일꾼이 죄를 범한 영혼을 상담해 준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어 주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본성의 악'을 발견해 버리려면

본성 속의 악은 연단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욕도 혹독한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깨닫고 이 악을 벗어버리므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꼭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본성의 악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낱알이 비추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했지요. 더구나 성령의 복음은 말씀의 날을 더 예리하게 갈아세운 말씀입니다. 본성의 세미한 악까지 찢러 쪼개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조명하여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본성 속의 악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함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본성의 악까지 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직 남아 있는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고 소원을 응답받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순종은 이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일석이조의 복을 안겨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 또는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

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결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베풀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순종의 훈련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린 베드로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만큼 현실을 뒤엎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구했지요. 다윗 왕과 같은 힘 있는 통치자,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좇았지요. 그러다가 형제지간인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날은 밤새 씨름했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요. 고기잡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허탕 쳤는데... 경험도, 지식도 없는 예수님이 나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실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 하고 생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연 것이지요. 이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먼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노력하지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할 때 중심의 회개가 나오지요. 그다음에는 죄에서 떠나야 하고, 주님께 생명을 빚졌으니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롬 6:12~13).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순종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하루는 성전 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 세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 주시며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명하시지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세겔을 얻음으로 이 시험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쭙기도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그 답을 주셨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형편을 훤히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필요를 성령께 구하고 오직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범사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순종을 잘하는 베드로였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바람에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 곧 육신의 생각이 틈타 더 이상 ‘오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 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수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답하므로 예수님께 칭찬과 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즈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 것입니다(마 16:22).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시지요. 이것은 인간적인 도의에서 나온 ‘의’로서, 육적으로는 스승을 생각하는 선한 생각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마음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진한 사랑으로 결국 베드로도 변화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 순종할 만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만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일의 열매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을 다 깨뜨리고 주님과 성령과 하나 된 일꾼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29) -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욥

본 문 : 욥기 12:22~13:5

오늘은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욥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정의 하나님이라고 비판하는 욥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
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욥 12:22~23)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감추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은 선진
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 막연하게 느낄 뿐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희미한 상태에서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예정의 하나님으로서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은밀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자신에게 혹독한 시험 환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은 선진들의 삶이나 자신의 처지를 보아도 예정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
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지 예정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이방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심은 어찌하
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욥이 전에는 밝은 세상
에서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순간에 죽음이 자기에게 몰아닥쳤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명 속에 살고 있던 자신에게 죽음과도 다름없는 상태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욥이 뒤틀린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판
단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버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음을 광명한 가운데로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
둠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 위로부터 빛을 비취 주셨기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빛인 하나님 말씀을 받
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와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옴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옴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인데 감정이 쌓이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악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정이란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서 마음 안에 서운함이나 불편함을 키우지 말고 매사에 선한 생각으로 자신을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아니며, 독재자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제로 만들고 결정하신다면,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하여 사업이 망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빗나가게 하셔서…”라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도 화개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나를 죄짓게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면 되지요. 만일 그렇다면 심판날에 지옥 판결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항변할 텐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옴은 뒤틀린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며 점점 더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감정, 악이 있으면 그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므로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갑니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옴 12:24~25)

여기서 두목이란 단체의 우두머리, 지도자, 통치자, 장수 등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어떤 조직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총명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빨라야 하며, 그러면서도 사려가 깊고, 매사에 신중하며 실수가 없어야 하지요. 이러한 총명이 사라진다면 두목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옴은 자신도 모든 자의 선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총명을 빼앗아 버리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옴을 빛 없이 캄캄한 데를, 즉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하시고 또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도록 만들어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옴은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옴이 옳은 말을 할 때는 선한 사람인 것 같다가, 옳지 않은 말을 주장할 때는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모습이지요.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예정의 하나님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욘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욘 13:1~3)

‘나의 눈이 다 보았고 귀가 통달했다’는 것은 욘이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뿐 아니라 욘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욘은 교만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상대하고 싶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덕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욘 4:3~4), 이러한 자신이 친구들보다 당연히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욘은 친구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점점 더 빛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온전함 속에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보다 낫지 못한 친구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 듯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 제자들에게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마 23:3)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진리라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욘은 9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고 했으며, 설사 하나님이 듣고 대답하셨을지라도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합니다. 왜 욘은 말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이는 욘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간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였거나 아니면 본인이 말한 것을 잊어버린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제 한 말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며, 말을 했으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온전하여 간사함이 없고 정직하며 진실한 사람은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은 어떠한지, 그 말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만 돌아보아도 마음의 비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도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박해져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욥 13:4~5)

욥은 친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진실치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주의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병을 고치는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처방을 받겠으며, 어떻게 그를 믿고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의원처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잠잠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말하지 않고 잠잠하면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가 출중했으며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니 누가 감히 욥을 상대하여 깨뜨려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의 어떤 권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보고 있으니 욥의 교만을 누가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심한 악창으로 역사하시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욥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만일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권면할 때는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권면할 때는 무시한다면 이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속상하고 불편하다면, 또 그 말에 상처받았다면 권면과 지적을 받지 못하는 작은 그릇입니다. 말하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의 말이 진리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복된 사람이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해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교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지 않은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옳은 길로 간다고 여기고, 남이 볼 때는 바르지 않은데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예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과 하나님께 감사

읽을 말씀 / 출애굽기 23:16

외울 말씀 / 시편 17:8

참고 말씀 / 레위기 23:42

교육 내용 /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감동스럽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1. 추수감사절의 유래

추수의 계절을 맞아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수장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年終 그해 마지막)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시요.

수장절은 원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 후 추수 감사제를 드림으로 한 해의 농사를 종결하였지요. 성경에는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 월 십오 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장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간 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43절에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젃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성하게 수확하여 감동적인 추수 감사제를 드리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했던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기념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장절은 출애굽 하여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모든 추수를 완료한 것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2. 청교도들의 신앙과 추수감사절

오늘날 세계적인 강국인 미국의 개척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청교도들의 눈물과 감사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마침내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지요. 도착한 그곳은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걸려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가지고 온 보리와 밀은 신대륙의 기후 조건과 맞지 않아 농사도 실패하고 말았지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원주민들의 위협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지요. 인디언 추장 사모세트는 몇 가지 씨앗을 주면서 재배 기술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햇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했지요. 인디언들을 초대해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낸 청교도들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절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나아가 교회와 학교를 세웠지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나감으로 마침내는 강대국 미국을 건설하였습니다.

3.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과 사고, 재앙으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중에는 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는 불치, 난치병이 수도룩합니다. 신종, 변종 질병도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지요.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도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로 이어지는 우울증을 앓고 알코올, 마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 권세가 있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자살하기도 하지요.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병,

의학으로 밝힐 수 없는 병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성도 한 분은 '양수과소증'으로 도저히 살릴 길 없었던 태아를 기도 받고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양수가 거의 없는 태반 속에서 그 연약한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남았지요. 또 한 분은 급성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진전되어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던 중 통회자복을 하고 기도를 받으므로 수술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지요.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재앙과 사고로부터도 능히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는 대지진과 가뭄, 산불과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소식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지켜 주시지요. 혹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철저히 돌이키고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되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온전해지도록 은혜와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성도가 『천국』 책을 읽고 “이 책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천국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천국 소망이 더해지니 신앙생활이 행복해졌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저도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 시리라” 말씀한 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참 자녀로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진주문 지나 새 예루살렘 들어와 보니 지난 일들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네” 이 찬양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알곡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더욱 사랑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병, 사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지킴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 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열두 개의 문이 있다. 문마다 큰 천사가 지키고 있어 성의 위엄과 권세를 한눈에 느낄 수 있다. 가까이에서 보면 한참을 올려다볼 정도로 큰 아치형의 문 전체가 하나의 영롱한 진주로 되어 있다. 양쪽으로 문이 열리며 황금보석 손잡이가 달려 있으나 굳이 손으로 열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 열두 진주 문을 통과하려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기까지 고통을 인내한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여 승리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스웨덴어, 「근본의 소리를 말하라」 스페인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말레이시아어(13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11월 은사집회」가 다음 주 금요일야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접수를 오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11월 20일)을 맞이하여 학습식 및 세례식을 실시합니다.
※ 학습식: 11월 13일(주일) 오후 2시 신학교 예배실
※ 세례식: 11월 20일(주일) 오후 2시 신학교 예배실 (집례: 당회장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녁예배 시 성찬예식이 신학교 3층 예배실과 사택 예배실 및 각 지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총회에 기도로 준비하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일자 및 장소는 후보 23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총회 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 1) 기도하는 사람
 - 2)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
 - 3)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사람
 - 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 5) 희생과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 6)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 7) 리더쉽(지도력)이 있는 사람
 - 8) 겸손한 사람

- 환돌성가대 신입대원 오디션이 오늘 저녁예배 후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 대상: 아동주일학교 예비 초등 1학년 ~ 예비 초등 6학년
 - ※ 오디션곡: 자유곡 1곡,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사진 첨부)
 - ※ 문의: 예능위원회 서승원 집사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전상균 형제(18교구, 3청년/ 전영찬 성도 · 박성채 권사의 아들)/

11월 19일(토) 오후 4시, 영등포구 양평로 58 「그랜드컨벤션센터 3층 리젠시홀」

안가영 자매(18교구, 2청년/ 윤종애 집사의 딸)/

11월 19일(토) 오후 5시, 부천시 길주로 105 세이브존백화점 9층 「라비에벨 웨딩홀 9층」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배은숙 집사(19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2023년도 정기총회 일정

일 자	기 관	시 간	장 소	비 고
11/27(주일)	남지역장	대예배 후	1층 카페	
	남조장	대예배 후	3층 예배실	
	남구역장	대예배 후	사택 예배실	
	장로회	저녁예배 후	3층 예배실	
	여지역장	저녁예배 후	사택 예배실	
11/28(월)	여조장	오전 11시	사택 예배실	
	여구역장	오후 1시	3층 예배실	
11/30(수)	권사회	오후 2시	3층 예배실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시	1층 카페	
12/3(토)	학생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오후 3시	1층 카페	

12/4(주일)	가나안선교회	대예배 후	3층 예배실	현장 온라인 병행
	중고등부	대예배 후 오후 1시 20분	3층 회의실	온라인
	남선교회	대예배 후	남선교회 식당	
	청년선교회	대예배 후	사택 예배실	현장 온라인 병행
	여선교회	저녁예배 후	3층 회의실	온라인
	기도제물연합회	저녁예배 후	사택 예배실	
	만민봉사대	저녁예배 후	3층 예배실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	저녁예배 후	1층 카페	

12/11(주일)	각 기관총회	대예배 및 저녁예배 후	자체실시	
-----------	--------	-----------------	------	--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11월 13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대대교구
11월 20일	대예배	7~9교구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대대교구	10~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1월 27일	대예배	1대대교구 남지역장, 남조장연합회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남구역장연합회
	저녁예배	7~10 교구 장로회	중국 1교구 여지역장연합회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1/13 일

- 00:00 - '믿음의 분량 2'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3' 이수진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114' 이재록 목사
- 18:30 -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황금란 목사

11/14 월

- 01:00 - '성령과 불세례'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115' 이재록 목사
- 08:00 - '천국 17' 이재록 목사
- 13:00 - '요한일서 강해 42' 이수진 목사
- 15:3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2'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66' 이재록 목사

11/15 화

- 01:00 - '그리스도 예수의 선행 일꾼 1' 이수진 목사
- 08:00 - '천국 18' 이재록 목사
- 10:20 - '선 3' 이재록 목사
- 12:05 - '2차 영혼육 9' 이재록 목사
- 13:00 - '요한일서 강해 43' 이수진 목사
- 15:3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3'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4'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20

11/16 수

- 00:00 - '십자가의 도 2'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11'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55'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2차 영혼육 10' 이재록 목사
- 13:00 - '위로부터 난 지혜 1' 이재록 목사
- 15:3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4'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일서 강해 2'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64' 이재록 목사

11/17 목

- 01:00 - '욥기 강해 29'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일서 강해 3' 이재록 목사
- 08:00 - '천국 20' 이재록 목사
- 10:20 - '선 5' 이재록 목사
- 12:05 - '2차 영혼육 11' 이재록 목사
- 13:00 - '위로부터 난 지혜 2' 이재록 목사
- 15:3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5'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21' 이수진 목사

11/18 금

- 08:00 - '천국 21' 이재록 목사
- 10:20 - '선 6'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3'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일서 강해 4'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11
- 20:40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1

11/19 토

- 07:05 - '요한일서 강해 5' 이재록 목사
- 10:00 - '온전한 믿음' 이재록 목사
- 12:05 - '2차 영혼육 13'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45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번,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Nov. 13(Sun.)

(Matthew 23:11) "But the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 Nov. 14(Mon.)

(Matthew 25:13) "Be on the alert then, for you do not know the day nor the hour."

• Nov. 15(Tue.)

(Matthew 28:18) "An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 Nov. 16(Wed.)

(Matthew 28: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 Nov. 17(Thu.)

(Matthew 28: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 Nov. 18(Fri.)

(Mark 11:24) "Therefore I say to you, all things for which you pray and ask,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them, and they will be granted you."

• Nov. 19(Sat.)

(Mark 13:11) "When they arrest you and hand you over, do not worry beforehand about what you are to say, but say whatever is given you in that hour;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it is the Holy Spirit."

금주의 성경구절

11월 13일(주일)

(마 23: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1월 14일(월)

(마 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1월 15일(화)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1월 16일(수)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11월 17일(목)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1월 18일(금)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1월 19일(토)

(막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후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식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قام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세교 교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_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_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_기도편

치료하는 영약/ ... 5_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_심계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_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_열매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사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맑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URIM BOOKS

일곱교회

사도 요한을 통한 주님의 간절한 의뢰

사도 요한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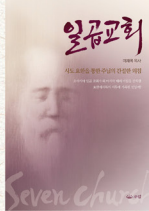
교회의 참모습을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의뢰.

일곱 번의 비명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1월 추천도서



추천도서 기간

기간 11. 01. ~ 11. 30.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홈페이지 : www.urimbooks.com #페이스북 : facebook.com/urbooks17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미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미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